

What Only Art Can Do: 'Anish Kapoor: Gathering Clouds'

October, 2016 | 우현정 기자

8 News

오롯이 예술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쉬카푸어: 군집된 구름들>
What Only Art Can Do: 'Anish Kapoor: Gathering Clouds'

19점의 신작으로 4년 만에 여는 국내 개인전
예술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실험의 연속
정형과 비정형에 관한 철학적인 물음을 미학적인 형태로 구현하다

제44회 베니스비엔날레 영국관 대표 작가이자 1991년 터너상 수상에 빛나는 아니쉬카푸어가 4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 티끌 하나 없는 스테인리스강철 조각과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색으로 관객을 명상의 길로 인도하는 그의 신작 <군집된 구름들>전을 통해 공개되었다. 2012년 리움에서 열린 최고전 형식의 개인전에서 붉은 왁스가 견고한 틀에 의해 와해되고 응집되는 '나의 붉은 모국'이 눈길을 끌었다면 이번 전시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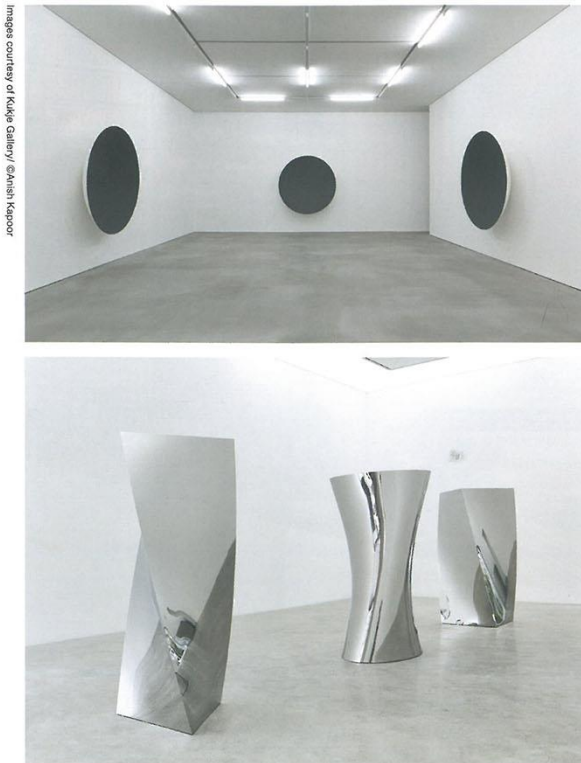
불특정한 각도로 휘어진 스테인리스강철 조각상 시리즈 '트위스트'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카푸어의 대표적인 연작 '비정형'의 연장선에 있는 이 작품들은 기하학적인 형태가 원형에 가깝게 비틀어지고, 매끄러운 표면에 반사된 작품의 곡면, 전시대바닥, 전시장 풍경이 맞물리며 유동적인 상태로 진이 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60cm에 달하는 열두 점의 작품은 1관에 설치되고 2.5m 높이의 대형 작품 세 점으로 3관을 채웠다. 직각에 가깝게 꺾이는 표면으로 기하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작가는 "기하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 다른 면에서는 직관적이기보다는 신비로우며 오묘하고 티끌린 형태를 통해 다층적인 의미를 구축한다"고 말한다. 또한 "물리적 존재로서의 조각을 예술의 비현실적 요소와 결합하는 데 흥미를 느낀다. 손에 잡히는 물성으로 어떻게 비현실적인 상황을 연출할 수 있을까?"라는 자신만의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이는 유리섬유로 제작된 반구형의 디스크 작업인 '군집된 구름들'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손에 잡히지 않는 비현실적인 존재인 구름을 철축에 가까운 검은색 안료로 표현한 이 작품을 보고 싶노라면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심연의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 공간, 작품, 관객의 균형을 섬세하게 조정함으로써 정신적 교감을 극대화시키는 아니쉬카푸어의 작업 앞에서 어떤 사실 정보에 근거한 작품 배경, 작가의 의도와 같이 현대미술에서 작품의 지위만을 중요해진 사족들을 잊어도 좋다. 작품을 이해하고자 전시장 입구에서 읽어내린 전시설명서의 문구들도 곧 잊혀질 것이다. 원하는 대로 보고 느끼고 그로부터 위로 받는 것이야말로 미술 작품이 지닌 본래의 역할이 아니던가. 외오려 할수록, 해석을 덧붙수록 심연에서 멀어진다. 그의 작품을 제대로 감상한다면 '텅 빈 어두운 공간이 아니라 어둠으로 가득 찬 공간'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전시는 10월 30일까지. <우현정 기자>

floor and the gallery's environment are all shifting in a fluid state. Approximately 60cm in height, the twelve twists are displayed on pedestals in K1, while the three larger twists, measuring 2.5m in height, rest directly upon the floor in K3. The artist, who presents new viewpoints on geometry with a surface bent almost at a right angle, said, 'geometry is not as simple as we think. In another aspect, it establishes multi-layered meanings through mysterious, concave and twisted forms rather than the more intuitive appreciations'. He also added his own question, 'I am interested in combination of unrealistic elements and in sculpture as physical things. How can I present an unrealistic situation through the tangible property of matter?' It could be applied to *Gathering Clouds*, which consists of wall-mounted and pigment-coated fiberglass discs. When you watch this work a fugacious, unrealistic cloud with black pigment emerges, in almost pitch darkness, in which one begins to experience the abyss, progressively sucked into the work. In front of Anish Kapoor's work, which maximizes a meeting of minds through the delicate adjustment in balance between space, work and audience, one might forget about all of the peripheral information that has arguably become as important as the artwork itself in contemporary art, such as the background of works based on context and the intentions of artist. The explanation you've read at the front of gallery will be forgotten. It is the primary role of artwork to foreground the act of seeing, feeling one's way and achieving a degree of visual consolation. The more you try to read and interpret, the farther it bears off from the abyss. If you properly appreciate his works, you will encounter 'a space filled with darkness, not an empty dark space'. The exhibition runs until Oct. 30.

<by Woo Hyunjung>

Anish Kapoor, the representative artist in the British Pavilion at the 44th Venice Biennale and the Turner Prize winner in 1991, is returning to Korea for the first time after his last exhibition at LEEUM, Samsung Museum of Art four years ago. Kapoor's 19 new works, which lead visitors on a road of meditative contemplation through flawless stainless steel sculptures and fathomless colours, were presented from Aug. 31 at Kukje Gallery's exhibition 'Gathering Clouds'. In this solo exhibition, *Twist*, a series of stainless steel sculptures bent at random angles catch the visitors' eye, whereas the work *My Red Homeland*, in which red wax continuously collapses and condenses in its rigid metal frame, at LEEUM in 2012, was outstanding. These works are an extension of Kapoor's representative series work, *Non-Object*. Their geometric forms are distorted circular shapes, and they arouse an illusion that the smooth curved surface of works, the



Installation views of Anish Kapoor's solo exhibition 'Gathering Clouds'

Images courtesy of Kukje Gallery / Anish Kapoor